



제로음료 시장
이색 마케팅
니



Life

범죄예방·아동보호
'방법초소' 편의점
L2



'고교교육 연계' 91개大 575억 지원... 서울대 등 16곳 감액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연차평가 16개大, 입시 부담 완화 노력 미흡 서울대·고려대 등 사업비 20% 삭감

수학능력시험(수능) 특정 과목 응시 조건을 풀지 않는 등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부족했던 대학들이 국고 사업 평가에서 감점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등 16곳의 국고 사업비가 삭감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대학 총 16곳에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사업비 20%를 삭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최상위 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 17곳에 나눠 지급된다. '미흡' 대학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개선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유형 I)

우수 (총 14개교)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대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숙명여대, 인하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남대, 한동대
보통 (총 50개교)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교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선문대, 세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교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림대, 한밭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미흡 (총 13개교)	건국대(글로벌), 경상국립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가나다순

자료/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대입 전형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에 입학 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형 I·II 각각 13곳·3곳 '미흡' 올해 '유형 I'에서는 ▲건국대(글로벌) ▲경상국립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13곳이 '미흡'을 받았다. '유형 I' 대학의 1곳당 연간 평균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다. 연 평균 3억원을 받던 '유형 II' 참여 대학 중에는 ▲동명대 ▲중원대 ▲홍익대 3곳이 '미흡'에 해당한다. 유형 II에는 최근 3년 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미흡' 대학은 사업비가 20% 감액 조정된다. 연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 I 은 1억5000만원, 유형 II는 6000만원 가량을 잃는 셈이다. 또한, 사업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추가 상담(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 16곳 중에서는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등 4곳이 국고를 감액받는다. 주요 대학 16곳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집정원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수능 응시 자격 조건을 풀지 않기로 하며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2024학년도에는 조건을 유지했고, 2025학년도부터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중 하나만 필수 응시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단,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숙대·인하대 등 '우수' 대학에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총 575억원(사업관리비 제외), 지원 대학 수는 총 91개교다. 연차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는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대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숙명여대 ▲인하대 ▲제주대 ▲신라대 등 17곳이 선정됐다. '보통'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여대 ▲선문대 ▲인천대 등 58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연차평가에선 지난해 선정된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점검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에서 '202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성동구 삼표부지, '글로벌 업무지구'로 재탄생

세계적 건축가 초청, 국제설계 공모 서울시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를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4명을 초청해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초청 건축가는 ▲데이비드 치퍼필드(영국, 아모레퍼시픽 사옥 설계) ▲위르겐 마이어(독일, 지퍼-RKM 740 설계) ▲KPF(미국, 10&30 허드슨 야드 설계) ▲SOM(미국, 부르즈 칼리파 설계)이다.

삼표 부지와 일대 사업 대상지

시 본공모에서 삼표부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제안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서울숲·수변·성수 일대 주변지와의 연계 및 시설 특화 방안 아이디어 제시토록 했다. 사업 주체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고, 내달 초 이들을 대상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현진 기자 hjk1@

한국외대, 데이터 청년캠퍼스 3년 연속 선정

빅데이터 실무 중심 교육 수행 맞춤형 데이터 고급인력 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한국외대를 포함, 고려대, 서울과기대 등 12개 운영기관이 선정돼 산업 현장 맞춤형 데이터 고급인력을 융합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구분해 양성한다. 한국외대는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2관왕을 거두며,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기초프로젝트와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심화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현진 기자

현 고2, 상위권 대학 교과전형에 수능 '필수'

2025학년도 대입 교과전형 변화 수능최저 없는 상위권大 이화여대뿐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에는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전형에서 수능 성적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학생

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기로 변경하면서 내신성적 상위권 학생이 수능최저 없이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이화여대만 남게 된다. 2024학년도에는 서울 주요대학 중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에서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다. 연세대의 경우,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의 전형 방법을 변경해 면접을 폐지하고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일반 모집단위의 최저기준은 영어 3등

급 이내에, 인문계열은 국, 수, 탐(1)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은 국, 수(미/기), 과탐(1) 중 수학 포함 2개 등급 합 5 이내이다.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매우 큰 변화를 줬다. 명칭을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변경하고, 전형방법 또한 '교과100'에서 '교과90+교과정성평가10'로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새롭게 적용하면서 지원 장벽을 높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1 | 해질 / 19:37

5월 18일 (木)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17~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최강희 감독, '손준호 구름' 中 산동지휘봉 ▲손흥민과 김주형 만났다...토틸넘 유니폼 들고 '찰칵' /사진 뉴시스

▲'첫 올림픽 본선 도전' 여자축구...18일 예선 조 추첨 ▲NBA 필라델피아, PO 2회전서 탈락한 리버스 감독 경질



▲KPGA 유일의 매치플레이 오늘 개막...홍정민 2연패 도전 ▲AC밀란 또 제압한 인터 밀란...13년 만에 UCL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